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연대의식 향상으로 공감능력을

요즘 사람들의 상당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연히 상대방의 감정이나 고통,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 이에 나누려는 생각 자체도 안 한다. 그러니 힘든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이해를 못하는 만큼 배려심도 부족하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목표만 중요시한다. 때문에 팔로워에 대한 배려심도 낮다. 만약 이런 부류가 자율성까지 높으면 대인관계는 심히 더 어려워진다. 그야말로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다.

안하무인격으로 타인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요즘을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다. 검찰고위직들도 마찬가지다. 칼자루만 쥐어주면 망나니 춤을 춘다. 더러운 침까지 발라가면서 참으로 괴악하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은 늘 존재한다. 조그만 회사 하나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욕구에 맞지 않을 경우 계거품을 풀어낸다. 열마를 투자했더니, 손해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끝불견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욕심이 턱지턱지 불어 있다. 이중 인격자다. 이런 족속들이 타인을 위해 시장에 뛰어들겠는가. 그것은 아니잖은가.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함이지.

온갖 이유를 붙여가면서 저지르는 부정행위 짓거리들도 이런 부류들의 전유물이다. 오물로 범벅이 된 일그러진 심연은 생각도 안 하고 날이면 날마다 원망하는 데만 몰두한다. 그야말로 좁쌀만도 못한 심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정의다. 천사다. 하지만 한번만이라도 이

런 부류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그들의 추악함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류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초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어둠에 쌓인 습지를 박쥐처럼 잡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다. 연대감을 높여 주면 된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부정적 행위들을 인정하는 경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난방이다. 사람의 성격을 측정하는 요인 가운데 '자율성과 연대감'이라는 것이 있다.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 조절력, 적응력과 관련하여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다.

어떤 일이든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목표 지향적이기에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에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식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책임지고자 한다. 반대로 자율성 낮은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한다. 타인과 상황을 늘 원망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 목적의식도 없다. 어떤 것을 해나가는데도 무용한 모습을 보이기에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 연대감은 자기 자신을 사회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자각하여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 생각 등을 잘 수용하고 공감해 준다.

연대감이 높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도 잘 공감해준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우호적이기에 실수가 있더라도 잘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준다.

하지만 원칙적인 것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연대감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 반대로 둘 다 낮게 되면 대인관계에 있어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성격장애일 수 있다. 우리 모두 이런 기회에 스스로의 성격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社說

‘학생독립운동’ 의미 되새겨야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60.8%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 1345명과 중학교 2학년 학생 1211명, 고등학교 1학년생 1344명 등 3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5개교 등 총 80개 학교에서 17개 항목의 학생독립운동 관련 역사인식 지표에 대해 5월부터 8월까지 사전 자료조사와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역사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11월3일)에 대해 39.2%가 '알고 있다', 60.8%는 '모른다'고 답했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지난해부터 정부기념식

으로 격상돼 치러진다는 사실도 24.4%만 알고 있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달에 대해서는 68.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광주에서 학생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45.4%에 불과했다.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국가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43.1%로 집계됐다.

학생들의 역사기념관 또는 역사박물관 방문 경험은 85.1%로 나타났다.

방문횟수는 3~4회가 29.9%로 가장 많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은 이번 학생독립운동 역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미흡한 점은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광주형자유학년제와 연계한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역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야외활동시 골절 주의 생활화 해야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늘고 있다.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가족 단위 나들이도 잦아지면서 넘어져 다치거나 부딪치는 등의 사고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시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서 신체를 부딪친 경우 부종과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골절을 의심

할 수 있다.

화동기 이전의 아이는 여러 종류의 불완전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눈에 띄게 부어오르지 않았거나 만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다치지 않은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부어올랐거나 만졌을 때 특정부위를 아파하거나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방사선 촬영을 해보아야 한다.

일단 팔, 다리의 뼈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부상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고 다친 부위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긴 후 확인한 손상부위를 안정되게 고정한다.

고정할 때에는 반지나, 시계 등을 제거하고 골절부위의 윗관절과 아래관절을 모두 고정해줘야 움직임에 의한 이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병원으로 이동할 때까지 손상부위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골절 부위를 원상태로 돌려 놓으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주변 근육조직이나 혈

관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상부위의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골절의 경우에는 가급적 덜 움직이는 것이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손상을 막는 지름길이며 부목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골절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골절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것이 유의하리라 생각된다.

백희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